현재 한국에서의 메르스 집단발생은 범세계적인 위협이 아니다.

중동 이외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경우이지만 전파방식에서 과거에 있었던 대량발생들 (outbreaks)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량발생 중 가장 큰 규모인 한국에서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 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잇따라 생기고 있다. 원인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는 대유행(pandemic)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 중 하나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번 한국에서의 대량발생이 한국 내에서 더 전파되더라도 범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었다:

- MERS-CoV는 인체감염 바이러스가 아니다.
- MERS-CoV는 주로 병원 내에서 전파된다.
- 한국에서 현재 잘 대응하고 있다.
- MERS-CoV는 사스(SARS)가 아니다.
- 이번 대량발생은 아주 큰 규모가 아니다.

MERS-CoV는 인체감염 바이러스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MERS-CoV는 주로 동물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박쥐에서 시작되어 때에 따라 매개 동물을 통해서 인체감염을 일으킨다. 주로 낙타가 해당된다. 사람 사이의 전파도 있지만 한국에서 보듯이 병원 내 감염 사례나 감염된 사람을 밀접히 접촉하며 돌보는 가족, 등에게 전파되는 사례로 한정된다. 첫 환자인 남성은 중동 4개국을 방문한 뒤 5월 5일 서울에 왔다. 그는 진단받기 전, 4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다. 대유행이 되기 위해서는 MERS-CoV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역학적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대량발생이 과거에 대량발생을 일으킨 균주와 다르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는 병원 내에서 주로 전파된다.

MERS-CoV는 인체감염 바이러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병원 내에서만 인체감염바이러스처럼 전파될 뿐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처치로 인해 아주 가까운 곳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호흡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단순한 기침만으로는 폐의 깊은 곳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사례에서는 5월 11일 독감비슷한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5월 20일에야 격리되었다. 그 사이에 아무런 감염통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단받기 전 4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은 사실도 감염의 위험을 증폭시켰다.

한국에서 현재 잘 대응하고 있다.

MERS-CoV는 사람 사이에서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한국 보건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보건당국은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며 14일 동안 관찰하며 증상이 보이면 격리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새로운 사례 모두가 이미 파악된 접촉자들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 보건당국은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매일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지만 바이러스의 새로운 전파가 아니며 이는 MERS-CoV가 진단되기 전 이미 감염되었던 1.600여 명 이사의 접촉자에게서만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는 사스가 아니다.

한국의 사태에서 2003년에 전세계를 휩쓸었던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를 떠올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스도 결국 통제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메르스와는다르다: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전파가 쉬운 형태로 변이되었다.하지만 메르스는 변이되지 않았다. 만약 MERS-CoV가 변이된다면 사스와 같은 대량발생을일으킬 것인가? 바이러스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대량발생에서 보통 나타나듯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유전적 변화를 거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파 양태에 특별히 다른 점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량발생은 아주 큰 규모가 아니다.

이 번 한국의 기사태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이레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 2014년 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의 대량발생 대는 255명이 감염되었으며, 2013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알-하사의 병원에서 집단 감염 때는 23명의 확진 사례 및 11명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병원에서도 수 십 건의 집단발생이 있어보건당국은 감염통제 인력을 재훈련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량발생에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도 부풀려 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접촉자를 아주 광범위하게 검사하였기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병원 대량발생 때는 파악되지 않고 지나갔을 경미한 사례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제 공: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www.medric.or.kr)

출 처: 네이쳐 : Nature doi:10.1038/nature.2015.17709

http://www.nature.com/news/south-korean-mers-outbreak-is-not-a-global-threat-1.1 7709